

원효는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



고영섭

시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과 「문애(원측)대사」, 「한국불학사」, 「몸이라는 화두」 등이 있으며, 「문애 원측과 그 교학 연구」(박사학위논문)를 비롯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1. 고전으로서의 원효

한국 사상사 내지 한국 철학사에서 원효(617~686)가 차지하는 위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 할 만큼 높고 깊다. 우선 원효 저작의 양과 질에서 그러하며, 그의 저작에 관한 연구 논문과 저술의 양)에 있어서도 압도적이다. 이러한 대중적 지명도를 얻게 된 것은 원효 저술의 완성도와 그의 인간적 매력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효' 하면 먼저 느끼게 되는 이미지는 '치밀한 사고력' 과 '활달한 문장력' 과 '넘치는 인간미' 가 드라마틱하게 육화된 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의 87종 180여 권의 저작 중 현존하는 20여 종의 저술 속에서도 이러

한 치밀한 사고력과 활달한 문장력과 넘치는 인간미를 읽어 낼 수 있다. 그것은 곧 ‘일심一心’ — ‘화和(諍)회會(通)’ — ‘무애無碍’²⁾의 축으로 압축된 그의 사상적 역정과 맞물려 있다. 때문에 일심과 화회와 무애로 표현되는 그의 평생의 면모를 통해 우리는 그를 사상가, 문장가, 수행자, 보살, 시인 등의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다층적인 면모는 앞 시대에 활동했던 고구려의 승랑僧朗(450?~550?)으로부터, 신라의 문아文雅(圓測, 613~696)와 의상義湘(625~702), 후대의 태현太賢(680?~760?)과 무상無相(684~762), 고려의 균여均如(923~973)와 지눌知訥(1158~1210), 조선의 휴정休靜(1520~1604)과 경허鏡虛(1846~1912)에 이르기까지의 사상가들과도 변별된다. 원효는 자신의 철학에 입각하여 삶과 생각을 일치시킨 보기 드문 존재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원효에 관한 연구 역시 그러한 면에서 조명되어 왔다.

그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연구 논저 목록은 각 연구서 뒤의 부록³⁾ 내지 단행본⁴⁾으로 몇 차례 집성되거나 간행된 적이 있다. 그에 관한 연구물이 지극히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원효 관련 논저 목록을 지속적으로 집성하고 간행하는 것은 연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저술이 ‘고전’으로서 확고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고전으로서의 원효’는 언제나 한국 사상사 내지 한국 철학사에서 넘어서야 할 존재 혹은 학문하는 이들의 귀감으로서의 ‘문제 인물’이었다.

고전이란 무수한 시간과 공간의 무게를 견디고 살아남은 책이다. 거기에는 고전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보편성이 내재해 있다. 보편성의 준거는 ‘있는 것(존재, 현실)과 있어야 할 것(당위, 이상) 사이의 거리의 최소화’라는 축과 ‘살아 있는 것들의 생물학적 조건의 동일성’이라는 축으로 구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고전을 통해서 인간이 머금고 있는 ‘동시대성을 발견’ 함으로써 고전 속의 인물을 배우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고전은 언제나 새로운 해석의 칼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전으로서의 원효

가 끊임없이 연구에 회자되는 것 역시 그에게서 동 시대성을 발견하려는 후학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원효 역시 후학들에 의해 끊임없이 연구되고 그들에게 흠모와 극복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 책 말미에 붙어 있는 원효 관련 연구물 목록의 집계를 중심으로 (1) 연구 성과, (2) 연구 경향, (3) 연구 과제로 분류한 것이다. 더러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지속성을 지닌 학술지와 잡지 그리고 문제의 저작은 가급적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여기서는 역사적인 접근보다는 철학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2. 원효 이해의 지형도

원효와 그의 저작에 관한 연구는 원효 당대로부터 시작된다.⁵⁾ 하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은 그의 사후부터라 할 수 있다. 고려 의천에 의해 재평가된 이후 원효는 시대의 고비고비마다 민족의 자긍심으로서 재조명되었다. 원효 입적에서부터 13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효 연구 스펙트럼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다.⁶⁾ 여기서는 우선 오늘날과 같은 글 쓰기 방식이 정착된 지난 1900년대 이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906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명진학교가 설립된 이후부터 1940년의 해화전문학교를 거쳐 동국대학교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은 아직 불교학 관련 학술지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의 발표 무대는 월간 『불교』(舊·新), 『조선불교시보朝鮮佛教時報』, 『조선불교총보朝鮮佛教總報』, 『금강저金剛杵』 등의 잡지나 기관지였다. 산발적으로 발표된 여타 글들의 무대 역시 이들 잡지나 인쇄물들이 대부분이었다.

원효에 대한 최초의 글은 『조선불교총보』 12~13집에 발표한 김영주의 「諸書에 現한 원효 『화엄소』 교의」(1918)와 같은 잡지 13집에 실린 정광진의

『대성화정국사 원효저술일람표』이다. 원효 관련 최초의 단행본은 사학자 장도빈이 지은 『위인 원효』(신문관, 1917)이다. 64면으로 된 작은 책이지만 종래 고승전류에서 원효의 전기를 다룬 이래 최초로 시도한 기념비적 저술이다. 이후 춘원 이광수는 『매일신보』에 연재(1942년 3월 시작)한 소설 『원효대사』(1942년 10월 완성)를 펴내기도 했다.

원효 저술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논문은 일본 동경의 조선불교동경유학생회 기관지인 『금강저』 22호에 실린 조명기의 「원효종사의 『십문화쟁론』 연구」(1937. 1)라 할 수 있다. 단간으로만 전해 오던 『십문화쟁론』에 대한 최초의 연구인 이 글은 ‘십문’은 ‘복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원효 저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계속해서 조명기는 단행본 『신라불교의 이념과 역사』(1960)를 간행하면서 원효의 저술과 사상에 대해 언급하였고 「원효의 화의 사상」(1972), 「원효의 현존 저서에 대하여」(1960), 「원효의 총화사상 연구」(1960) 등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면서 원효학 연구의 시금석을 놓았다. 이후 그는 『원효대사전집』(보려각, 1978)을 간행하였고 대한불교문화진흥회를 조직하여 『한국불교사학대사전』(1991)을 간행하기도 했다. 산발적인 연구이지만 이상이 1960년대 이전까지의 원효 연구 경향이라 할 수 있다.

1958년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학술지 『동국사상』을 창간하고 또 1960년 불교문화연구소에서 『불교학보』를 내기 시작하면서 한국 불교 연구와 원효 사상 연구는 처음으로 학술지의 무대를 확보했다. 전국적인 학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원효 연구는 주로 이들 잡지가 주요 무대였다. 그 이후 1973년 한국불교학회가 창립되면서 『한국불교학』지에 원효 관련 논문이 실리기 시작했다. 때문에 학술지를 배경으로 한 원효 연구가 전국적으로 시작된 것은 7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원효 연구가 싹이 트기 시작한 70년대는 아직도 대부분 개인적인 연구 경향에 머무를 정도로 논문의 양이 적었다. 단행본의 발간은 아직 기대할 정도

고전은 언제나 새로운 해석의 칼날을 기다리고 있다. 고전으로서의 원효가 끊임없이 연구에 회자되는 것 역시 그에게서 동 시대성을 발견하려는 후학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원효 역시 후학들에 의해 끊임없이 연구되고 그들에게 흠모와 극복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일 수밖에 없다.

가 아니었다. 간간이 원효 저작이 집성되거나 선집으로 간행되었을 뿐이다. 이 시기의 원효 연구는 불교 관련 학술지와 지방 대학의 연구소 저널 등이 주요 무대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로 소략하게나마 소책자의 논집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원효학 연구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70~80년대와 달리 그 지평이 광범위하게 활성화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학술지도 90년대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늘어났고 연구자 수 역시 급증했다. 각 대학교에서 원효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도 다수가 양산되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원효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책 뒤에 실려 있는 원효 관련 연구물 목록에 집성된 2001년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1) 시대 및 형태별, (2) 전공 및 게재지별로 구분하여 도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시대 및 형태별

형태	구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계
저서		4	4	8	22	8	60	60
편·역서		3	2	14	9	7	2	37
박사학위논문				2	12	11		25
석사학위논문			2	2	25	25		54
일반논문		26	30	80	153	253	21	553
논설		6	9	14	25	39	9	102
계		39	47	120	235	367	38	831

이 책 뒤에 덧붙인 「원효 관련 논저 목록」은 원효를 주제로 한 연구뿐만 아니라 원효와 관련된 인접 주제의 연구까지 망라한 것이다. 원효의 위상이나 사유 체계가 워낙 포괄적이어서 그의 삶의 방식이 한 개인의 역사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이라는 이름 아래 직·간접적인 여러 논구까지 통계에 포함시켰다. 그 때문에 학술적 연구가 아닌 논설까지도 목록에 집성할 수밖에 없었다.

단행본의 경우는 『원효학연구』나 『원효사상』과 같은 학술지도 독립된 저작으로 집계했다. 또 『신라사상연구』, 『신라정토사상사연구』, 『신라아미타정토사상연구』, 『대승기신론 사상 연구』, 『한국불교사상연구』처럼 원효를 주제 또는 제목으로 달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부분 원효에 관한 것이거나 원효를 중심 인물로 두고 전개한 것은 모두 집계에 포함시켰다.

편서의 경우는 『한국불교전서』처럼 원효의 한문 원전을 집성한 것에서부터 필사영인본 그리고 해당 시대의 필요에 따라 선집 성격으로 만든 교재 혹은 단행본으로 독립시킨 것 모두를 통계에 포함시켰다. 역서의 경우는 현토본에서부터 역주본까지 다 논저 목록에 포함시켰다.

학위 논문의 경우는 일반 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도 있어 목록에서는 이중으로 집계된 것도 있다. 비록 같은 학위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집계되었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일반 논문의 경우, 1950년대 이전까지는 학술지가 전혀 없어 월간지, 일간신문(연재본), 팸플릿(주보 등) 등의 인쇄물이 주요 발표 무대였기에 여기에 실린 글들도 통계에 넣었다. 일반 논문과 논설은 필자의 신분이나 잡지의 성격, 그리고 글의 양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또 일반 논문이지만 새로운 학술지나 단행본으로 집성될 때에 다시 실린 경우가 있어 그 숫자가 중복된 것이 더러 있다. 하지만 이들 중복 논문이라 하더라도 해당 잡지나 학술지의 지면을 차지하고 있고 또 첫 발표 당시와 달

리 제목을 바꾸거나 수정 보충한 글도 있어 목록에서는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집계했다. 대개 중복된 양은 원효 관련 논문의 ‘십분의 일’ (60여 편) 내외로 보면 될 것이다.

위의 도표에 의하면 1900년대 초반으로부터 시작된 원효 연구는 70년 이후 석·박사 학위 논문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논문과 논설 등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이것은 또 원효 연구자들의 출현으로 인해 원효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80~90년대의 원효 연구는 이전 시대보다 두드러질 정도로 많은 양이 발표되었고 인접 학문 분야에까지 원효 탐색이 확대되었다.

90년대 이후는 원효 관련 연구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면서 원효 연구는 불교 연구의 범주를 넘어서 한국 철학사 내지 한국 사상사의 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된다. 그 결과 원효를 학문적 화두로 택하는 학자군들도 늘고 있다. 아울러 국내의 무대를 넘어서서 국제 무대로까지 원효 연구 범주가 확장되었다.

2) 전공 및 게재지별

게재지 \ 전공	철학	사학	문학	교육학	심리학	기타	계
지서	28	18	6			8	60
원효학 연구	21	3					24
한국 불교학	12						12
불교학보	8	1					9
동국사상	5	1					6
불교연구	16	1					17
보조사상	2						2
가산학보		1	1		1		3
백련불교논집	1						1
원효사상	2	4					6
기타	245	95	25	12	30	103	410
계	340	124	32	12	31	111	550

원효 저술의 성격상 가장 많은 연구 분야는 아무래도 철학과 역사 쪽일 것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문학과 심리학 쪽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도표는 불교 관련 주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과 기타 각 대학교의 연구소나 지방 단체의 학술지 등에 실린 것을 집계한 것이다. 여기서는 학술지에 실린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분류한 것이므로 주로 학술적 연구가 중심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실제 논문은 한 편이지만 그 글이 다양한 학술지에 실렸을 경우 중복해서 계산했다.

원효 연구가 특화된 것은 9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원효 관련 논문 역시 9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양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원효 연구가였던 이기영이 주도한 한국불교연구원의 『불교연구』에 원효 관련 논문이 비교적 많이 실렸다. 이후 원효학연구원(김영태)의 학술지인 『원효학연구』나 원효연구원(이영무)의 『원효사상』이 창간되면서 원효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역사가 짧은 저널이지만 불교 관련 학술지에 간간이 실린 원효 관련 논문의 수와 크게 대비된다.

이 집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효 전문 학술지를 제외하고는 원효 관련 논문이 불교 관련 학술지에 산발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아마도 불교의 교학 분야의 포괄성과 한국 불교사에서 불학하는 인물층의 두터움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원효라는 인물은 크기는 하지만 그 역시 다른 한국 불학자들과 같은 1인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효 사상의 포괄성 때문에 정작 원효학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쉬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원효를 연구하기 위한 수년간의 온축의 요청이 원효에의 접근을 가로막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원효 이해의 무늬와 실결

원효학 연구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편의상 네 시기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경학이 국학이 되고 국학이 경학이 되는 것이 우리 학문이 지향할 가장 이상적인 길이다. 원효 연구가 불교계의 불학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경학이자 국학이 될 때 원효학은 그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효 연구자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 한국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새로운 글쓰기 방식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1900년대 이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구분할 때 각 시기별 개성이 드러난다. 1910년 전후로부터 1960년대까지의 파종기, 1970년의 맹아기, 1980년대의 성장기, 1990년대의 성숙기로 갈라볼 수 있다.

첫째, 파종기는 그야말로 원효의 재발견기라 할 수 있다. 사학자 장도빈의 『위인 원효』(1917)의 간행, 춘원 이광수의 소설 『원효대사』(1942)의 탈고, 조소앙의 「신라국원효대사전명서」 작성 등은 전설이나 설화 속에 묻혀 있던 원효를 우리 역사 속에 재조명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 파종기는 달리 말하면 원효 이해에 대한 계몽기라 할 수 있다. 그 위에서 원효 저작이 집성되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효 연구는 그의 저작이 단행본으로 간행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둘째, 맹아기는 주로 원효 저술의 재간행이 중심이었다 할 수 있다. 1949~1950년 불교사학연구실에서 『원효대사전집』을 펴낸 이래 1973년 불교학동인회의 『원효전집』, 1974년 불교학연구회의 『한국고승집: 신라시대1』, 1978년 조명기 편집의 『원효대사전집』이 간행되었고, 1979년 동국대학교출판부에서 『한국불교전서: 신라시대편1』이 간행됨으로써 원효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 대한불교원효종에서 『국역원효성사전서』(6책)를 간행(1987~1988)함으로써 원효 연구의 교두보가 마련되면서 원효 탐색은 본격화되었다.

셋째, 성장기인 80년대는 각 대학교에서 학위 논문이 양산되기 시작했고

원효 연구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정부나 지방 단체에서도 민족 통일과 국론 통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원효를 조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석·박사 학위 논문도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동국대학교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서 끌고루 원효 관련 학위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넷째, 성장기의 흐름을 이어받은 성숙기인 90년대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원효 저술의 역주본이 간행되어 원효 연구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은정희의 『대승기신론소·별기』와 『금강삼매경론』의 역주는 90년대의 원효 연구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원효 연구자들이 급증했으며, 평생의 학문적 화두를 원효로 잡은 연구자들도 생겨났다. 정신분석학, 심리학, 교육학, 문학 등에서도 원효의 심식론(心識論), 교육론, 문장론 등에 관한 접근을 시도했다.

위에서 언급한 파종기, 맹아기, 성장기, 성숙기 네 시기의 연구 경향을 종합해 보면 이렇다. 우선 원효 저술 87종 180여 권 중에서 현존하는 20여 부를 분류해 보면 대체적인 연구 경향도 엿볼 수 있게 된다. 현존 저술은 원효의 사유 체계를 담고 있는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대승육정참회(大乘六情懺悔)』,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등의 대자적인 창작적 저술과 유식, 정토, 화엄, 계율, 본업경, 기신론, 아미타경, 미륵경, 열반경, 논리학 계통 등에 대한 즉자적인 주석적 저술이 남아 있다. 원효 연구의 경향 역시 현존하는 이들 저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원효 연구의 파종기에서 맹아기에 이르기까지는 주로 그의 대표적 저술 내지 원효 사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주요 텍스트로는 『십문화쟁론』,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대승기신론별기(大乘起信論別記)』,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 등이 중심이었고, 사상적 접근으로는 일심사상, 화쟁사상, 정토사상 등이 주요 테마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연구는 대부분이 산발적인 연구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산발적 연구기를 거쳐 80~90년대의 성장기와 성숙기에 들어서면 서부터 비로소 원효의 핵심 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원효 사상을 일심사상, 화쟁사상, 화엄사상, 일심이문사상, 이문일심사상 등으로 기호화하기 시작했다.

그 기호들은 좀더 구체화되어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歸一心源) “중생들을 풍요롭고 이익되게 한다”(饒益衆生), “둘이 아니면서도 하나를 고수하지 않는다”(無二而不守一), “백가의 다양한 주장을 화회하여 회통한다”(統衆典之部分, 和百家之異諍), “일심이문사상”, “이문일심사상” 등의 구절로 구체화되었다.

각 대학원의 학위 논문 주제는 주로 원효의 정토학, 유식학, 중관학, 일심사상, 화(쟁)회(통)사상, 화엄사상, 여래장사상, 기신론사상 등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의 원효 연구자들은 원효의 열반론, 불성론, 법화경관, 계율관, 윤리관, 인간관, 평화관, 참회관 등의 주제로 옮겨 갔다.

이들은 원효의 대표 사상이라 평가받는 『기신론』의 일심이문사상이나 이문일심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론, 장애론障礙論, 심식론, 교판론, 교체론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또 서양 철학 전공자들은 동서 비교 철학의 입장에서 원효 사상을 분석했다. 특히 루소, 칸트, 야스퍼스, 화이트 헤드, 질 들뢰즈 등의 사유는 원효의 사유와 종종 대비되었다.

1997년 경주 분황사에 원효학 연구원이 개원되고 서울에서 원효학회가 발족되면서 원효 연구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학회지인 『원효학연구』를 통해 원효 저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통일 문제나 실천 혹은 수행 문제를 집중 탐색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한국의 동국대학교와 미국의 뉴욕 주립대가 국제원효학회를 창설하고 원효 저술을 영역하기 시작하면서 원효는 국제적인 인물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다.

4. 더 나아가야 할 길

원효 관련 논문은 석·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700여 편에 이른다. 단일 주제로 따지더라도 가장 많은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종래의 연구 중 많은 부분이 중복된 주제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아직도 미진한 분야가 다수 남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자 수의 부족과 연구 여건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래 연구 결과를 놓고 앞으로의 과제와 대비해 볼 때 두드러진 특징은 불교 이해의 핵심인 ‘마음’에 대한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존하는 원효의 주요 저술이 머금고 있는 그의 심식 이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대부분 한문 전적과 일부 산스크리트어 문헌 해독에 따른 어려움과 불교 심식론의 난해함 때문이다. 또 장시간의 공력을 들여야 이해가 되는 구사-유식학의 연구가 전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면 원효학의 연구에 있어 앞으로 남은 연구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원효의 현존하는 전 저술에 대한 치밀한 한글 번역과 주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위에서 영역 작업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이해를 꾀할 수 있다. 『국역원효성사전서』가 간행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좀더 정교한 역주본이 나와야만 연구층을 두텁게 할 수 있고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 여러 사상가들의 저술 속에 인용되어 있는 원효의 저술을 집일하여 미비하나마 원효의 저작을 확장하는 일이다. 『원효학연구』의 부록으로 집일된 것(「현전 제서 중의 원효성사 찬술문 鈔存」)과 김상현 교수의 집일본 등이 있지만 한중일 삼국의 저작에 흩어져 인용되어 있는 원효 저술을 뽑아 현존 20여 부의 숫자를 좀더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원효의 주요 저술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저술 혹은 집일된 나머지 저술들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 사상가의 사유 체계

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듯 원효의 다수 저술 속에서 그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추적하는 일이 요망된다.

넷째, 원효 사상의 핵심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의 문제이다. 일심, 화쟁 회통, 무애, 화업, 일심이문, 이문일심, 기신론 사상 등의 담론을 모아 통설을 정립하는 일이다. 하나로 모으기는 어렵다 해도 어느 정도 하나의 통설로 세워 원효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다섯째, 원효의 논법이 화쟁회통이라면 한국 사상사에서 화회의 논법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사상사의 독자적인 모습으로서 자리할 수 있는지 등의 사상사적인 모색이 요구된다. 이것은 한국 사상사의 정체성과 인식틀을 세우는 작업이기도 하므로 유학과 도학 분야와의 긴밀한 협동이 요청된다.

여섯째, 종래와 같이 불교학 내부나 철학과 역사 분야에서의 연구만이 아니라 인접 학문 분야와의 학제간 혹은 팀 연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문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인지과학, 교육학, 미학, 생태환경학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접근이 요청된다. 철학의 경우 동양 철학 내지 한국 철학의 관점에서 원효 사상을 조망해야 하고, 역사의 경우에도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들 몇 가지 조건 외에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⁷⁾

원효는 이제 한국만의 사상가가 아니다. 그에 관한 연구도 한국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는 한국인 원효에 대한 연구는 한국인만이 잘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 「원효는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에서 선정한 논문은 한국인의 것에 한정했다. 그 이유는 원효가 머금고 있는 주체성 내지 자생성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했다더라도 넣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경학이 국학이 되고 국학이 경학이 되는 것이 우리 학문이 지향할 가장 이

상적인 길이다. 원효 연구가 불교계의 불학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경학이자 국학이 될 때 원효학은 그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효 연구자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 한국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럴 때 원효는 불교계의 한 승려가 아니라 한국 사상사의 정점에 자리한 철학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효 연구 스펙트럼의 빛은 이제 새롭게 투사되고 발광되어야 할 것이다. 乘

주

- 1) 현재까지 간행된 원효 관련 논문은 대략 700여 편에 이르며, 그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연관한 단행본 역시 50여 권이 출판되었다. 학위 논문은 석·박사 논문을 포함하여 100여 편에 육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이 책 뒤에 덧붙인 「원효 관련 논저 목록」이 참고가 된다.
- 2) 졸론, 「원효의 통일학: 부정(破·奪)과 긍정(立·興)의 화쟁법」, 『동국사상』 제26집(동국대학교 불교대학, 1995년).
- 3) 양은용, 『신라원효연구』 부록(이리: 원광대학교 출판부, 1979);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편, 『원효연구논총: 그 철학과 인간의 모든 것』 부록(서울: 국토통일원, 1987); 김지건, 『원효성사의 철학세계』 부록(서울: 민족사, 1989); 동국대학교 불교학자료실 조사, 「원효관련 연구 논저 총합색인」, 『다보』 제6호 부록(서울: 대한불교진흥원, 1993. 6); 김상현, 『역사로 읽는 원효』 부록(서울: 고려원, 1995); 고영섭,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 부록(서울: 한길사, 1997); 고영섭, 『원효탐색』 부록(서울: 연기사, 2001) 등이 있다.
- 4)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학연구소, 『원효연구논저목록』(서울: 민창문화사, 1996).
- 5) 오늘의 우리와 글쓰기 방식이 달랐던 종래 시대에 원효 저술을 직접 연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저술에 깊은 영향을 받고 저작된 것들도 넓게 보면 원효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法藏과 澄觀, 신라의 憬興, 太賢, 見登(之), 表眞, 고려의 均如, 義天, 知訥, 一然 등의 저술에서 원효의 글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 6) 의천의 『대각국사문집』,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이인로의 『파한집』, 일연의 『삼국유사』, 서거정의 『동문선』 등에서 재조명되거나 집성되었다.
- 7) 은정희, 「원효의 저술과 사상적 경향」, 『한국불교사의 재조명』(서울: 불교시대사, 1994). 그는 이 글에서 보다 현실적인 연구 과제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원효의 작품

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문 문장 독해력' 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인도 불교 논리학인 '인명론을 연구' 해야 한다. (3) '동양과 서양의 철학 일반' 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연구해야 한다. (4) '불교 교학 전반' 에 대하여 상당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5) 앞의 네 가지를 갖춘 뒤 '끈덕진 자세' 로 원효의 작품을 분석 종합하는 공부를 지속해야 한다. (6) '팀을 구성' 하여 십 년, 이십 년 이상 '끈기 있게 연구'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교계의 총체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효의 어떤 이론, 어떤 생각이 왜, 어떻게 훌륭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이 우리 오천 년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사상이 원효를 제대로 알리는 길이 될 것" 이라고 역설하고 있다.